

# 제26회 한국어능력시험

## 초급 쓰기 정답 및 채점기준표 [B형]

문항번호	정답 (객관식)	배점	문항번호	정답 (객관식)	배점	
31	④	4점	36	①	4점	
32	②	4점	37	③	4점	
33	①	4점	38	④	4점	
34	③	4점	39	③	4점	
35	②	4점	40	①	4점	
답지 빈도	답지번호	①	②	③	④	계
	정답수	3	2	3	2	10

문항번호	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(주관식)	배점
41	<p>6점:아파서, 아프기 때문에, 다쳐서, 다쳤기 때문에</p> <p>4점:맥락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(예, ‘아팠어서’, ‘다쳤서’, ‘다치기 때문에’, ‘다치니까’ 등)</p> <p>3점:연결 표현은 맞게 사용했지만 맥락상 의미가 어색한 어휘가 사용된 경우 (예, ‘못 걸어서’, ‘못 걷기 때문에’ 등)</p> <p>2점:연결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련 어휘만 써서 맥락에 맞지 않는 경우 (예, ‘아프다, 다치다’ 등)</p> <p>1점:심각한 형태적 오류로 문장의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</p> <p>※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</p>	6점
42	<p>6점:누가 찍었어요,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</p> <p>4점:의문사 ‘누가’와 ‘찍다’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시제에 맞지 않는 경우 (예, ‘누가 찍어요’, ‘누가 찍겠어요’ 등)</p> <p>3점:의문사는 맞으나 ‘찍다’라는 어휘가 없고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(예, ‘누가 했어요’ 등)</p> <p>2점:‘찍다’라는 어휘는 사용하였으나 의문사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(예, ‘어디 찍었어요’, ‘사진 찍어요’ 등)</p> <p>※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</p>	6점
43	<p>6점:몇 분이세요? 몇 명이세요? 몇 명이예요?</p> <p>4점:사람의 명수를 묻는 표현을 사용해서 의미가 통하는 경우</p>	6점

	<p>(예, ‘얼마나 많이 와요’, ‘사람이 많이 와요’, ‘다섯 명이예요’ 등)</p> <p>3점:사람의 명수를 묻는 표현을 사용하고 의미가 통하나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(예, ‘몇 명이었어요’, ‘몇 명이 왔어요’, ‘몇 명이 오겠어요’ 등)</p> <p>2점:사람의 명수를 묻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(예, ‘몇 명’, ‘얼마나 많이’ 등)</p> <p>※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</p>	
44	<p>6점:바꾸는, 바꾸어 주는, 바꿀 수 있는</p> <p>4점:맥락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(예, ‘바꾼, ‘바꾸어 준’, 등)</p> <p>3점:연결 표현은 맞게 사용했지만 맥락상 의미가 어색한 어휘가 사용된 경우 (예, ‘바뀌는’ 등)</p> <p>2점:연결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련 어휘만 써서 맥락에 맞지 않는 경우 (예, ‘바꾸다’ ‘바꿀 수 있다’ 등)</p> <p>1점:심각한 형태적 오류로 문장의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</p> <p>※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</p>	6점
45	<p>6점:걸리기 전에, 걸리지 않게</p> <p>4점:맥락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(예, ‘걸리면, ‘걸리지만’ 등)</p> <p>3점:연결 표현은 맞게 사용했지만 맥락상 의미가 어색한 어휘가 사용된 경우 (예, ‘아프기 전에’ 등)</p> <p>2점:연결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련 어휘만 써서 맥락에 맞지 않는 경우 (예, ‘걸리다’ 등)</p> <p>1점: 심각한 형태적 오류로 문장의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</p> <p>※ 미미한 형태적 오류는 각 점수에서 1점 감점</p>	6점
4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: 제시 내용 당 -5</li> <li>· 글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-1 ~ -3</li> <li>· 분량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경우 -1 ~ -5</li> <li>· 빈번한 문법, 어휘, 맞춤법 오류 -3 ~ -8</li> </ul> <p>&lt;모범 답안 예시&gt;</p> <p>저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지만 도시보다 시골에서 살고 싶습니다. 도시는 가게도 많고 버스나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 편합니다.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키우기 힘들고 예쁜 꽃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. 도시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시골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저는 시골이 좋습니다. 매일 저녁 강아지와 시골길을 산책하고 마당에 예쁜 꽃이나 나무를 키우면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골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. 지금은 회사 때문에 힘들지만 회사를 그만 둔 후에는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.</p>	30점